우리나라 養鷄業의 安定化 方案

—Integration方案을 중심으로—

尹 孝 稷
建國大敎授, 農業經濟學博士(建國大)

Ⅰ. 序 論
Ⅱ. 統合化의 意義
Ⅲ. 統合化의 要件과 그 類型
1. 統合化의 要件
2. 統合化의 類型
Ⅳ. 우리나라 養鷄業의 統合化 方案
Ⅴ. 結 論

Ⅰ. 序 論

지난 년말부터 우리나라의 養鷄業界에는 또 다시 不況의 徵兆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대부분의 養鷄人은 이 不況이 곧 회복되리라는 과거와 같이 受動的이며 안일한 자세를 취해 왔다.

그러나 이 不況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長期化할 가능성을 짙게 나타내자, 問題가 매우 심각함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養鷄人은 과거와 같이 안일하게 不況을 극복하려는 자세를 止揚하여, 능동적이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不況을 극복하고, 보다 安定된 基盤위에서 지속적인 發展을 가져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 우리 나라 養鷄業을 安定시키는 동시에 보다 건전한 生産基盤 위에 지속적으로 發展시키기 위한 方案으로서 統合的 生産體制(integration)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本論稿에서는 1930년대 世界恐慌 이후부터 導入되어 美國의 養鷄를 크게 발전시킨 統合化(integration)가 현실적 與件으로 보아 우리 나라 養鷄業의 安定과 지속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겠는가, 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할 때 統合化의 과정에 어떠한 問題가 提起되고, 어떠한 方向으로 統合化해야 하며, 누가 統合의 主體(integrator)가 되어야 하는가를 제시하여 養鷄業의 統合化에 대한 理論的인 方案을 提供코자 한다.

Ⅱ. 統合化의 意義

養鷄業에 관여하고 있는 主要 機能別 部門을 보면 병아리, 飼料, 藥品 등 生産資材를 공급하는 部門과, 이 資材를 이용하여 鷄肉과 鷄卵을 생산하는 部門, 생산된 鷄肉과 鷄卵을 加工하는 部門, 그리고 이를 流通하는 部門이 있다.

그런데 이들 各部門이 제각기 獨立的 經營組織을 갖게 될 때, 가장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은 資材를 이용하여 鷄肉과 鷄卵을 생산하는 部門을 담당하는 飼育者이다.

왜냐 하면 飼育者만이 完全競爭의 市場構造下에서 販賣寡占(oligopoly) 및 購賣寡占(oligopsony)의 입장에 있는 孵化, 飼料, 屠鷄部門과 맞서 去來를 해야 하므로 去來交涉力(bargaining power)이 자연히 弱化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우기 資本主義經濟 體制下에서는 이들 各部門이 獨立體制를 유지하면서 점차 部門間의 利潤追求가 심해짐으로써 全體의 能率을 높이는데 언제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면 이들 部門 중 生産資材를 供給하는 部門이 그들의 利潤을 크게 하기 위해 生産資材의 가격을 인상하면 養鷄産物을 生産하는 部門인 生産者의 生産萎縮이 불가피하게 되고, 이는 곧 生産資材 供給部門의 販賣減少 및 流通部門의 處理物量 減少를 가져와 養鷄業의 各部門뿐 아니라 養鷄業 전체의 安定과 發展을 해치는 結果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生産者의 안정없이는 各部門이 存立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고, 결국 各部門의 獨自的 利潤追求에 앞서 生産者의 利潤保障策을 講究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生産者보다 經濟的 優位에 있는 어느 部門의 主導下에 生産安定을 이루면 生産의 增加를 가져와 自體部門의 事業擴大는 물론 養鷄業의 安定과 發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養鷄業의 統合은, 생산자를 둘러싸고 있는 孵化業者, 飼料業者, 屠鷄業者, 流通業者가 主體가 되어 이들 機能別 部門間에 결합하는 垂直結合(vertical integration)과 部門內에서의 결합, 예를 들면 孵化場과 孵化場이 서로 결합하는 水平結合(horizontal integration)을 말한다.[1] 그러므로 統合化란 各部門을 전체로 묶어버리는 것이라 定義할 수 있다.[2]

이와 같은 統合的 生産體制는 生産部門과 加工 및 流通部門을 직결시킴으로써 生産過剩으로 인한 生産物의 滯貨를 방지함은 물론, 生産調節을 가능케 하여 生産者의 利潤을 보장시켜 줌으로써 生産의 安定을 가져오고 季節的 價格變動을 最少化할 수 있으며, 또한 최신의 飼養管理, 育種의 技術을 導入·利用함으로써 生産効率을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統合化는 養鷄産物의 蒐集, 運搬, 加工을 大規模化함으로써 流通費用을 節減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疾病을 예방하고, 나아가 品質 좋은 養鷄産物의 생산을 가능케 한다.

특히 이는 流通을 組織化하고 適正價格으로 生産物을 消費者에게 販賣할 수 있으며, 備蓄과 加工으로 製品을 多樣化시켜 消費의 촉진을 가져오는 등 그 意義는 자못 크다.[3]

이와 같이 統合化는 生産→加工→流通→消費의 모든 분야를 하나의 흐름(flow)으로 結束시켜 各 部門間에 効率性을 最大化하면서, 전체적으로는 養鷄業을 건전한 企業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더우기 이와 같은 統合的 生産體制下에서 加工業者(屠鷄業者)는 生産과 消費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橋梁 役割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자기 製品의 需要量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根據로 하여 定量을 契約生産함으로써 需給의 均衡을 유지할 수 있게 하며, 자신의 企業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製品의 開發과 宣傳으로 生産物의 消費를 더욱 촉진하게 하는 것이다.

Ⅲ. 統合化의 要件과 그 類型

1. 統合化의 要件

統合化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要件이

갖추어져야 하는바, 이 要件으로서 먼저 生産規模의 大型化가 이루어져야 되는 반면, 生産地域이 集中되어야 하며, 또한 加工(屠鷄)施設도 여기에 集中되어야 한다.

美國의 경우 브로일러(broiler)의 統合化가 발전하게 된 근본적 동기는 바로 生産規模가 大型化되고 일부 지역에 生産과 加工施設이 集中되었기 때문이다.

1930年代 이래 美國의 브로일러業은 그 生産規模가 커짐과 동시에, 일부지역에 集中하는 傾向이 나타났다. 1930년 이전에는 美國 전역에 걸쳐 브로일러가 사육되었으나, 1930년 이후부터 東部 및 東南部의 10個州에서 대규모로 集團生産되었다.

또한 生産規模에 있어서도 10萬首 이상 생산하는 農場數가 60%에 달하며, 이 밖에 80%이상이 東南部의 9個州에 집중되고, 이 集團生産地에 위치한 20個의 近代施設을 갖춘 屠鷄場이 全國生産量의 60%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4]

이와 같이 美國에 있어서는 生産規模가 大型化하고, 生産地域 및 屠鷄施設이 집중됨으로써 브로일러의 統合的 生産體制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이 結果 오늘날에 있어서는 브로일러 生産量의 91%가 統合化의 體制下에서 契約生産되고 있으며, 8%가 統合化의 主體에 의하여 생산되고, 1%만이 우리 나라처럼 개별 생산하고 있다.

또한 統合化의 先決要件으로서 生産技術이 발달되어 均質의 브로일러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하고, 철저한 衛生檢査로서 製品에 대한 信賴度를 높여, 이로 인하여 消費量도 증가시킬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要件은 養鷄業의 統合化에 求心的 役割을 담당하는 대규모의 近代化된 屠鷄場과 계란 選別包裝센터가 養鷄團地에 설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養鷄業의 聯關企業이 독자적으로 屠鷄場이나 계란 選別包裝센터를 신설하거나, 또는 旣存 業者들로 하여금 屠鷄場施設을 확장토록 하거나, 農協을 통하여 이들을 主産地에 신설하여 이들로 하여금 加工, 處理된 生産物을 販賣하는 流通網을 확보토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屠鷄 및 계란 選別施設의 擴張과 병행하여 현재 留保되고 있는 畜産物加工處理法을 강화하여, 현재 市場內에 산재하고 있는 都散賣商(生鷄商人)의 在來式 屠鷄는 철저히 團束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消費者들로 하여금 屠鷄品에 대한 바른 認識을 갖도록 해야하며, 契約生産하는 養鷄業者는 長期的인 안목을 가지고 價格이 暴騰하는 경우에도 契約한 物量을 供給토록 노력하여 서로 信賴할 수 있는 與件이 造成되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諸條件이 갖추어지지 않는 한, 統合的 生産體制는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다만 우리 나라의 養鷄業은 다른 어느 畜産部門보다 生産規模의 大型化가 이루어지고 있고, 生産地域도 數個의 大都市近郊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統合化의 가능성은 짙다고 볼 수 있다.

2. 統合化의 類型

統合化의 類型은 統合化의 主體가 契約飼育者에게 資金支援과 技術指導만을 해 주는 단순한 契約條件에서부터 飼育者에게 給料만을 支拂할 정도로 깊이 經營에 개입하는 類型의 契約條件까지 있다.

그러나, 대개 統合化의 主體는 병아리, 飼料, 藥品 등 生産資材의 供給과 동시에 生産 및 經營指導를 하며, 생산된 생산물의 販賣를 책임지는

한편, 契約飼育者는 鷄舍 등 生產施設과 勞動力 및 材料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5]

그런데 현재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主要 統合化의 類型을 열거하면,

첫째, 利潤分配型을 들 수 있다. 이는 部分的 統合方式으로 統合化의 主體가 사육자에게 공급한 生產資材는 時價에 의하여 계산하고 經營과 販賣는 상호 협의하에 하되, 생산물의 가격에 있어 市場價格과 生產費의 差額에 대해서는 約定에 따라 配分하고, 損失에 대해서는 共同負擔하는 形態의 生產樣式이다.

둘째, 定額保障型을 들 수 있다. 이는 飼育者가 施設과 勞動力만을 제공하고, 統合主體는 生產資材의 조달은 물론 經營指導와 販賣까지 담당할 뿐만 아니라 損失도 모두 책임을 진다. 그러므로 飼育者는 統合化主體의 모든 지침에 따라야 하며 飼育者에 대한 反對給付는 經營의 結果에 관계없이 마리當 얼마라고 하는 割當額과 정해진 條件下의 일정한 보너스를 보장받는 樣式이다.

세째의 類型은 能率給型이다. 이는 定額保障型과 生產, 販賣, 危險負擔方法은 모두 같으나, 飼育者에 대한 利益分配方式이 전혀 다르다. 즉 이 類型은 生產技術의 結果인 飼料效率에 一定率의 利益과 보너스가 지급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固定給型을 들 수 있다. 이는 統合化의 극단적인 發展類型으로 定額保障型 및 能率給型보다 統合化의 主體가 生產內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飼育者의 利益을 固定시키는 방법이다. 統合化의 主體가 生產施設까지 공급할 때가 있으며, 週給 또는 月給으로 飼育者에게 지불하므로 飼育者의 利益을 가장 안정시켜 주는 類型으로 현재 각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6]

이상 統合化의 類型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나, 어느 類型이 가장 合理的인가는 그 나라의 與件에 따라 각기 상이할 뿐이다.

Ⅳ. 우리나라 養鷄業의 統合化 方案

우리 나라의 鷄肉生產은 1965년 이전까지 採卵用 老鷄가 주된 供給源이었으나, 1962년 이후 牛肉 및 豚肉生產이 減少되고 美國剩餘農產物의 순조로운 도입에 의한 飼料의 안정공급 및 우수한 種鷄가 도입되었으며, 이와 아울러 國民所得水準이 향상됨에 따라 短期 大量飼育이 가능한 肉鷄生產이 1965년을 기점으로 급속한 成長을 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1965~1971년까지 7個年間의 成長率은 275%로서 年平均 39%의 높은 成長率을 나타내었다.

한편 계란 생산에 있어서는 農家副業形態가 주된 供給源을 이루었으나, 1960년을 전후하여 專業的 大規模 形態가 보급되기 시작하여 1960~1971년에 이르는 11個年의 年平均 成長率은 19%로서 비교적 높은 成長率을 이루었는데, 1973년 飼料價格의 暴騰으로 이러한 成長率은 鈍化하는 傾向을 나타내었다.[7]

이와 같은 飼料價格의 暴騰으로 인한 養鷄產物의 價格 上昇은 이의 消費를 激減시켜 닭의 飼育首數를 1971년 2,500萬首에서 1974년에 1,800萬首로 크게 減少시켰다.

그러나 1975년에 이르러 飼料價格이 下落하고 他肉種의 價格騰貴와 國民所得水準이 향상됨에 따라 다시 好況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 好景氣는 1978년 후반까지 계속되었다.

이와 같이 1975~1978년까지 4년간 好況을 맞이하였던 결과, 이 기간 동안 飼育首數의 급격

한 增加와 더불어 經營規模가 크게 확대되고 種鷄의 需給調節을 하지 않음으로써 初生雛의 生産過剩이 야기되었으며, 이로 인한 肉鷄用 飼料生産이 1976年度 148千M/T에서 1978年에는 452千M/T으로 205%가 增加되었다.

반면 消費面에서는 1978년에 쇠고기와 돼지고기가 大量 輸入(쇠고기 5萬M/T 돼지고기 2千M/T)되어, 이들 價格이 상대적으로 下落함으로써 養鷄産物의 消費가 萎縮되어, 이들 價格은 1978년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養鷄業은, 生産者의 自律的인 生産調節機構(美國의 Egg Board나 Broiler Council)나 生産調節를 위한 制度가 갖추어져 있지 못함으로써 年度別로 好況과 不況이 繼起的 變動을 되풀이하게 되며, 季節別로도 價格振幅이 심하지 않을 수 없다(계란 17%, 鷄肉 14%).

그러므로 우리나라 養鷄業의 安定과 나아가 건전한 반전을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過剩生産을 防止하며 需要均衡을 유지케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現實的인 귀결에서 볼 때 統合的 生産體制의 導入은 불가피하며, 統合化에 대한 구체적인 方案이 定立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統合化의 成敗를 좌우하는 것은 統合의 主體이다. 先進國의 경우 統合化의 主體는 飼料資本이나 食品加工資本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先進國과 같이 食品加工資本家가 統合化의 主體가 되어야 하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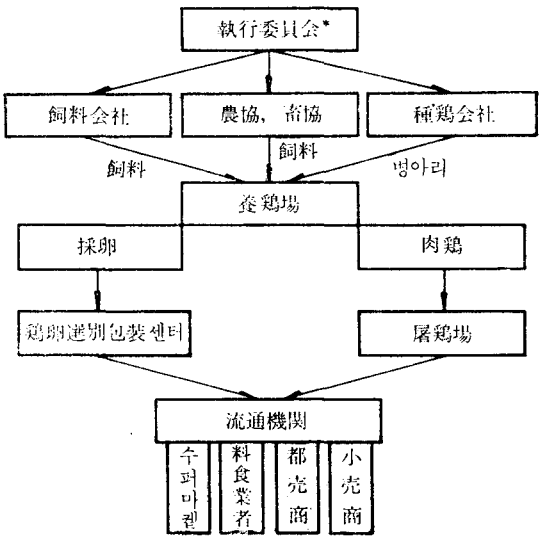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경우 食品加工資本이 養鷄業에 있어서 統合化의 主體가 되는 것은 再考의 여지가 없지 않다. 解放後 製粉, 製糖 등 食品加工資本이 우리나라 農業生産者의 犧牲을 얼마나 강요했고, 또 강요하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결코 이들은 統合化의 主體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統合化의 主體는 현재 養鷄業과 연관을 가지고 種鷄場이나 屠鷄場 및 飼料工場을 경영하고 있는 資本家나 畜協 또는 農協이 현실적으로 볼 때 가장 바람직한 主體이다.

그리고 統合化의 類型은 우리 나라의 現實的與件으로 보아 飼育者가 施設과 勞動力만을 提供하고, 統合化의 主體가 生産資材(飼料, 병아리, 藥品)를 調達하고 經營指導, 販賣와 危險까지도 담당하며, 飼育者는 마리當 일정한 割當額을 보장받는 定額保障型을 채택하는 것이 合理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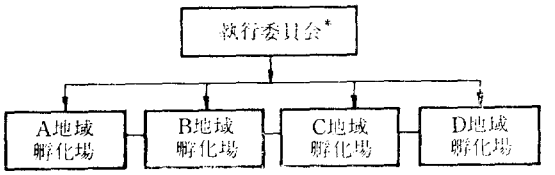
또한 統合化의 體制로 轉換할 수 있는 지역은 현재 畜産物加工處理法에서 指定한 一次告示地域(서울, 釜山, 城南, 光州, 大邱, 全州, 大田) 중 生鷄流通이 禁止된 地域이어야 하며, 統合主體가 새로이 屠鷄場이나 種鷄場 및 계란選別場을 신설할 때는 養鷄團地에 설치토록 하되, 신설 및 확장에 소요되는 資金은 畜産振興基金에서 支援해야 할 것이다.

圖 1 垂直(縱的)統合方法



*政府, 飼料會社, 農協, 種鷄會社, 養鷄場, 계란선별센터, 屠鷄場, 流通業者의 代表로 構成.

圖 2 水平(橫的)統合方案



* 地域別 孵化 代表로 構成.

물론 이와 같은 統合化의 過程에 政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契約의 履行過程을 면밀히 점토하고 飼育者의 被害를 事前에 防止토록 해야 하며, 養鷄業에 관련된 모든 主體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參與하여야만 우리가 바라는 소망스러운 養鷄業의 安定化와 健全한 發展을 가져올 수 있는 統合化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상, 統合化의 必然性과 主體 및 類型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나, 앞으로 設置, 運營될 우리 나라 養鷄業의 統合化 模型을 提示하면〈圖 1〉 및 〈圖 2〉와 같다.

V. 結 論

이상에서 우리 나라 養鷄業이 企業化된 1960年代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動向에서 볼 때 統合化의 必然性과 統合化를 위한 先決要件 및 統合化의 方案을 提示하였다.

무엇보다 앞으로 增產될 鷄肉 및 鷄卵을 適正價格으로 最終消費者의 需要에 적응시키는 반면, 最少의 費用으로 流通시킴으로써 生產農家에 유리한 受取價格을 보장하여 增產을 위한 誘因(incentives)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消費者에게 食料品에 대한 支出을 최대한으로 경감시키는 方案으로서 養鷄業에 統合的 生產體制가 도입되어 養鷄業을 안정된 생산기반 위에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養鷄業에서 統合化가 성공하여 우리 나라 養鷄業도 先進國과 같이 發展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他畜產分野에서도 이것이 가능케 하는데 先導的인 役割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政府가 적극적으로 介入하여 統合化의 過程에서 가장 重要視되는 主體의 選定을 農畜協이나 현재 養鷄에 관여하는 加工施設을 갖춘 業體에 국한시키며 統合化에 필요한 施設에 資金支援은 물론, 契約履行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法機構 및 制度를 强化해야 할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養鷄業者나 加工業者와 流通業者도 과거와 같이 養鷄業을 投機로 생각하던 觀念을 止揚하고, 全體 聯關企業의 健全하고 均衡있는 發展을 위하여 이를 절실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參與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모두가 적극적으로 參與하게 될 때 우리가 바라는 養鷄產業의 統合化가 이루어져 安定된 生產基盤 위에서 先進國과 같이 우리 나라 養鷄業도 健全하게 發展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畜產 全般에 걸친 發展의 契機를 造成할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1. Kohls, Richard L., *Marketing of Agricultural Products*, 1968, p. 32.
2. Converse, Paul D., *Elements of Marketing*, 1958, p. 120.
3. Agnew, Hugh E., *Outlines of Marketing*, 1950, p. 121.
4. 大韓養鷄協會, 「月刊養鷄」, 1979. 7, p. 105.
5. Lance, G. Chris, *Integrated Poultry and Egg Production in Georgia: Operations and Contracts*, 1973, p. 5.
6, 大韓養鷄協會, 「月刊養鷄」, 1979. 7, pp. 103~104.
7. 尹孝稷, 「鷄肉 및 鷄卵의 生產 流通 消費에 關한 硏究」, 1975, p. 1.